

EBS  + 송주호 · EBS 정보기술연구소/음악칼럼니스트

음악에 다가가기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은 악기를 비롯하여 장르, 음악사, 음악 이론 등 쉽지만은 않은 주제들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제 독자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녹록치 않은 소양으로 무장되어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난이 지나면 단 열매를 맛보는 법이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은 음악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동호회

음악을 즐기는 방법으로 동호회를 맨 처음으로 둔 것은 그만큼 동호회를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것이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동호회 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사내 동호회일 것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EBS에도 여러 동호회가 있지만 아쉽게도 클래식 음악 동호회는 없다. 하지만, 최근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알게 되어 음악회 소식을 공유하며, 함께 관람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방송사는 아니지만 사내 동호회로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2003년에 삼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매년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후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관악기로 이루어진 삼성 윈드 오케스트라가 탄생 하기도 했다. 방송사에서도 아마추어 관현악단을 조직해 보는 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궁금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인터넷 동호회는 어떨까. 인터넷 동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회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생면 부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색해서 오프라인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그래도 동호회 운영자들이나 열성 멤버들은 신입들의 고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게 잘 챙겨주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야 할까?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나 감상하는 성향, 그리고 연령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우선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아보자. 예를 들면, 오페라를 좋아한다면 오페라 관련 동호회가 좋을 것이다. 현재 1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있는 오페라하우스(<http://cafe.naver.com/operahouse>)를 추천한다. 예술의전당 내에 있는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이 동호회는 자세한 설명과 전곡 감상으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기반 동호회들은 1990년대 중반 PC 통신 시절에 인터넷 동호회를 주도했던 당시 대학생들이 현재까지도 주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40~50대라면 오프라인 중심의 오페라 감상 동호회인 광장 클럽(http://www.musikbaum.org/tt/site/ttboard.cgi?db=club01_1)도 있다. 하지만, 회비가 다소 높은 것이 흠이다.

특정한 악기를 좋아한다면 악기 동호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이런 동호회들을 통해 악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좋은 레슨 선생을 구할 수도 있다. 첼로를 좋아한다면 50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뉘포르(<http://www.viol.kr>)가 있으며, 클라리넷을 좋아한다면 클라리넷 매니어(<http://cafe.naver.com/clarinetmania>)에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클라리넷 매니어]

아직 이렇다 할 선호하는 분야가 없다면 클래식 음악 전반을 아우르는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슈만과 클라라(<http://cafe.naver.com/gosnc>)는 1만 6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 동호회로, 매달 한 번씩 감상회를 열어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된 연주 모임이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슈만과 클라라의 감상회는 압구정역 근처의 음악 감상실인 무지크바움에서 매월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주제로 열린다. 참석 인원은 40~50명 정도이며, 연주회는 80~10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처음 참석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슈만과 클라라]

공연장 I

뭐니 뭐니 해도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그 감동을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어떤 공연을 선택해야하며 어떤 공연장으로 가야하는지 난감하다면 동호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호회에서는 추천 공연의 티켓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종종 초대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공연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장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나 첫째로 서울 서초동 소재의 예술의전당(<http://www.sac.or.kr>)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예술의전당에 위치한 연주홀은 크게 음악당과 오페라하우스로 나뉘어 있다. 음악당 안에는 대형 홀인 콘서트홀과 소규모 실내악을 위한 리사이틀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페라 하우스는 말 그대로 오페라를 위한 오페라 극장과 토월 극장, 자유 소극장이 있다. 토월 극장과 자유 소극장은 무용이나 연극을 위한 공간이지만 자유 소극장에서는 소규모의 오페라가 종종 열리기도 한다.

예술의전당에서는 거의 매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무작정 찾아가서 관람하는 분들도 있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특별한 취향이 없는 분들은 어떤 공연을 봐야할지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날 때 찾아가보도록 하자. 보통 국내 연주자의 공연이라면 2~3만원이면 관람할 수 있지만, 해외 유명 단체의 내한공연인 경우 4~5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이 정도는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음악당의 경우 평일은 오후 8시에 공연이 시작되며, 휴일은 2시 반 혹은 3시 공연도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경우에는 공연 시간에 따라 8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7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페라하우스로 갈 경우에는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술의전당 음악당과 오페라하우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http://www.sejongpac.or.kr>)도 예술의전당 못지않은 역사와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예술의전당을 능가하는 규모와 대형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가치가 높다. 하지만 본래 음악이 아닌 행사용으로 설계된 까닭에 반사 음향이 거의 없어 홀 음향이 좋지 않은 것이 흠이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갈 때에는 직접음이 잘 도달하는 1층 중앙이 좋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어쩌면 모두) 공연장 오르간은 무대 중앙에 설치되어있는데 세종 대극장에서는 오르간이 우측에 설치되어 있어, 이 홀이 음악 연주를 염두에 두지 않은 설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중규모의 세종 체임버홀은 뛰어난 음향으로 대단히 인기가 높다. 이곳도 거의 매일 연주회가 열리고 있으니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찾아가서 참석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예술의전당과 비슷하며, 시작 시간은 30분 빠른 7시 30분이다.



[금호아트홀]



[호암아트홀]



[LG아트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포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금호아트홀(<http://www.kumhoarthall.com>)은 중소규모의 실내악 홀로써 인기가 높다. 이 홀은 영재 콘서트를 비롯하여 국내외 중견 연주자들이 자주 무대에 등장하며 독주회와 실내악의 중심지가 된지 오래이다. 연주자의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독주를 좋아한다면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곳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 8시에 공연이 열리며, 휴일은 오후 3시에도 공연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 시청역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호암아트홀(<http://www.hoamarthall.org>)에서도 연주회가 많이 열린다. 필자는 20년 전에 이곳에서 영화 '마농의 샘'을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홀도 음악 공연을 위한 홀이 아니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사 음향이 거의 없어 클래식 공연장으로서 문제점이 많은 홀이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 공연 횟수가 부쩍 늘고 있다. 실내악 위주로 공연이 열리며, 저녁 8시에 시작된다. 휴일은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공연이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갔다가는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최근에 클래식 음악을 위한 중요한 연주홀로서 급부상한 곳이 있다. 서울 역삼역과 연결된 LG아트홀(<http://www.lgart.co.kr>)이 그곳이다. LG아트홀은 다른 홀과는 달리 대관공연보다는 자체 기획 공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과 연극, 재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단체나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보다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연이 많아 마니아들이 자주 찾는다.

이외에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노원문화회관, 건대 앞에 위치한 نارూ아트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여러 공연장들이 있다. 이 중 구로아트밸리(<http://www.guroartsvally.or.kr>)는 뛰어난 기획력과 아낌없는 투자로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 열고 있다. 대림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로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면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공연장 II

서울 인근에도 중요한 공연장이 많다. 대부분 최근에 공연장으로서 건립되어 뛰어난 음향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분당 이매역 근처의 성남아트센터(<http://www.snart.or.kr>)이다. 개관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연주자를 초청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과 쌍벽을 이루는 고양에도 이에 못지않은 공연장이 두 개나 있다.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가 그것으로, 이 둘은 고양문화재단(<http://www.artgy.or.kr>)에 소속되어있다. 원당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인 어울림누리는 여러 체육시설과 함께 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면, 정발산역과 연결되어있는 아람누리는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서 건립되어 수준 높은 공연이 자주 열리고 있다.

요즘에는 대전이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http://www.djac.or.kr>)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자체 기획으로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위치에 힘입어 전국의 음악 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고양아람누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음반

동호회도 공연장도 가기가 어렵다면 음반을 구해보자. 사실 음반은 가장 접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대중음악처럼 유행이 있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한 곡에도 다양한 연주자들의 음반들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망설여지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일은 유명한 곡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유명한 모차르트의 〈주피터 교향곡〉이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음반을 구입하기 위해 음반점을 들르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해보라. 수십 종의 음반들이 나열되어있는 검색 목록을 보고 ‘구입을 포기한다’에 한 표 걸겠다.

그래서 명반 가이드 서적이나 ‘라 무지카’나 ‘안단테’와 같은 무료 음반 리뷰 잡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무료 음반 리뷰 잡지는 대형 음반점에서 구할 수 있다. 특히 라 무지카는 교보문고 소속이므로 교보문고 내의 핫트랙스에서 매월 초에 구할 수 있으며, 안단테는 핫트랙스를 비롯하여 신나라, 풍월당, 예술의전당 음악당 내의 음반점인 예전 등에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행본인 경우 책이 출판된 이후 발매된 음반에 대한 정보는 웬만한 마니아가 아니면 구하기 쉽지 않으며, 반대로 리뷰 잡지는 전통적인 명반에 대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을 모두 참고해보는 것이 좋으며, 다소 부담스럽다면 동호회 게시판에서 검색하거나 물어보면 관련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처음 클래식을 듣고자 한다면 사실 이러한 정보도 손에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작곡가보다는 유명한 연주자의 음반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바이올린을 좋아한다면 정경화나 장영주(사라 장)의 음반을, 첼로를 좋아한다면 장한나의 음반을, 피아노를 좋아한다면 백건우의 음반을, 노래를 좋아한다면 조수미의 음반을 골라보자. 또한 비올라 연주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나 더블베이스 연주자인 성민제, 기타 연주자인 장대건 등의 음반은 클래식 음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제 6개월 동안의 연재를 모두 마쳤다. 몇 분이 제 글을 보셨을까? 그리고 그 중 몇 분이 클래식 음악에 보다 관심이 있게 되었을까? 클래식 음악은 오랜 인류의 문화적 소산이며 축적된 예술의 정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그렇기에 소위 ‘고급문화’라고 일컬어지며 도리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6개월간의 연재를 다시 보면서 클래식 음악이 당신에게 내밀고 있는 손을 맞잡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란다.